

국내 최초 ‘완도 해양치유센터’ 24일 개관

해수·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 활용 16개 치유 요법 시설 갖춰
한 달간 시범 운영... 체험객 만족도 높아 개관 전 이용 문의 쇄도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연면적 7,740㎡ 규모, 총 16개의 치유 요법 시설을 갖춰 오는 24일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된 완도 해양치유센터(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61번길 94)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이다.

센터 1층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해수 풀인 ‘팍라소풀’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팍라소풀’에서는 수중 노르딕 워킹 등 각종 수중운동과 에어 버블을 통해 수압 마사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신 이완과 통증 완화, 근육통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해수 미스트’는 해수를 미세한 입자로 분사하여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함으로써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며, ‘명상 풀’에서는 몸을 물위에 띄운 상태로 전문 강사의 도움



을 받아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 완화, 스트레스 및 불면증 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

‘머드 테라피’는 완도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를 몸에 바르면 독소 배출, 피부 개선 등에 좋고, ‘해조류 거품 테라피’는 해조류의 영양 성분을 거품화 해 전신에 발라 마사지하면 피부 재생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

‘명상 풀’과 ‘해조류 거품 테라피’

는 시범운영 기간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2층에는 11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먼저 건강 측정실에서 체형 분석 및 피부 상태 측정 후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11개 프로그램은 해수 풀, 스티프 샤워, 비쉬 샤워, 바스 테라피, 저주파 테라피, 해조류 머드 랩핑 등 습식 테

라피와 오감을 테마로 한 컬러, 소리, 음악, 향기, 스킨 테라피 등 건식 테라피로 구성됐다.

‘해조류 머드 랩핑’은 해조류 또는 해조류 분말을 해수 또는 머드에 섞어 피부에 도포하면 붓기 및 관절염 통증 완화, 피부 개선 등에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필라테스,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GX룸과 휴식과 함께 차, 다과 등을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으며,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이 90%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군은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24일 개관 준비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은 “해양치유센터 본격 운영되면 국내 해양치유산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면서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강진, 지역현안 해결 위해 내년 국비 확보 ‘사활’

더불어민주당-강진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강진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생의 각오로 내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강진원 강진군수,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군의원, 도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예산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5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 삭감이 예상되면서, 민선 8기 내년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강진군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강진군은 이 자리에서 ▲출생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 ▲저탄소

그린전환을 위한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구축 ▲강진 마량 국가어항 확장 개발 계획 ▲강진만 해양레저 관광 거점사업 등 총 17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또 그동안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했음에도 미반영됐던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도·군의원들의 공감을 형성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 경제가 힘들겠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1차산업 육성,

관광객 유치, 인구 유입 정책 등 내년도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전남도청을 적극 방문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정부예산을 확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최근 지방소멸대응 기금 A등급에 선정돼 112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전남도·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관련 공모사업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12억 6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더본코리아와 함께 하는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 실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한홍수 기자

영광, 내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 선정

영광군은 환경부에서 주관한 ‘2024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비를 포함한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은 전국 6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전남은 22개 시·군 중 영

광군을 포함한 8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취약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유형이며, 폭염 등 이상 기후의 빈도·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탄력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고령자, 아동,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더 크게 나타난다”라며 “해당 취약 유형에 적합한 적은 기반시설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해 그 피해를 예방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순천, 제3회 읍면동 체육대회 ‘덕연동 종합우승 3연패’

시민 화합·건강증진·생활체육 활성화로 평생체육도시 구현

순천시가 지난 18일 팔마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한 ‘제3회 읍면동 체육대회’에서 덕연동이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 3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는 순천시체육회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을 비롯한 24개 읍면동 체육회장,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순천시의회 나인수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 유현호 순천부시장, 순천농협 최남휴 조합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씨름, 축구, 족구, 게이트볼, 400m계주, 윷놀이 총 6개 종목에서 각 읍면동 대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었다.

대회 결과 종합우승은 덕연동, 준우승은 해룡면, 3위는 도사동과 왕조 1동이 각각 차지했다.

6개 종목별 결과는 △축구 1위 덕연동, 2위 해룡면, 3위 왕조1동과 왕조2동, △족구는 1위 덕연동, 2위 해룡면, 3위 낙안면과 삼산동, △씨름



은 1위 송광면, 2위 황전면, 3위 해룡면과 조곡동, △윷놀이 1위 왕조2동, 2위 서면, 3위 도사동과 월등면, △게이트볼 1위 월등면, 2위 매곡동, 3위 풍덕동과 승주읍, △400계주 남자 1위 덕연동, 2위 해룡면, 3위 왕조1동, 여자 1위 덕연동, 2위 해룡면, 3위 주암면, 혼합 1위 덕연동, 2위 해룡면, 3위 도사동이 각각 입상했다.

또한 이날 오후 2시부터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는 24개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장기자랑과 함께 행운권 주첨이 진행되었

으며, 노래자랑 대상은 황전면 김종훈, 금상 낙안면 염승규, 은상 왕지동 김지선.이미선, 동상 월등면 장병석, 인기상 3명, 참가상 5명이 수상했다.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은 “지난해 이태원 사고로 취소되어 2년 만에 열린 대회라 홍보에 힘썼는데, 오늘 아침 날씨가 춥고 눈이 내려 걱정이 많았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건강으로 활력순천!이 스포츠 메카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준의 기자

곡성,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안부장관상’

곡성군이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곡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곡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학교와 지역을 잇는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강사를 양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역강사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교육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곡성군은 학부모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꿈놀자학교 일자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 전문인력 풀을 구성했으며 지역의 숲 자원과 초등 교과 과정과 연계한 트리클라이밍, 빗줄놀이 등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마을역사강사 11명, 생태텃밭정원농 90명을 양성했으며 일부가 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강사 14명을 활용해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1대 1 교육을 지원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숲·생태 일자리 분야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지역 소멸 극복과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황상연 기자

진도, 전남도 내 공공비축미 특등 비율 1위

특등 비율 58.6%... 지난해보다 25.8% 증가

진도군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건조벼를 2744톤 매입했고 11월 말까지 4016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군은 15일 기준 매입 물량 중 특등 비율이 무려 58.6%에 달하고 지난해 특등 비율 32.8%에 비해 25.8%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를 포함한 전남도 내에서 최상위권의 진도산 벼는 우수한 품질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수매 때마다 군수를 포함한 NH농협 진도군지부장, 각 읍면장, 지역농협장, 농업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참여해 농가 지도와 수매 안전 사고 예방을 강조하며 힘

썼기 때문이다.

특히 군은 농가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과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등 사업비 약 23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진도쌀 품질 유지에 집중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올 한해도 병해충 등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예산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계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벼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앞으로의 매입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장흥, 계약심사 확대 ‘15억원 예산 절감’

장흥군은 계약심사 확대를 통해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에 맞춰 전남도에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

라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비 보조사업 등의 계약심사 권한이 장흥군으로 이양되어 계약심사 대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사업 174건에 대해 원가 검사 등을 심사해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산 절감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공종과 공법, 수량과 계약의 과다계상, 노임의 품셈 적용 오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계약심사 예산 절감액이 15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김한중 군수, 국회방문 국비확보 ‘총력’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 현안사업 예산 반영 건의

김한중 장성군수가 17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 군수는 2024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기동민 의원을 만나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관련 등 8건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한중 군수는 “2024년 건축 재정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



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앞서 10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예산 확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심재식 기자

목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주력

목포시가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기관사정, 대면편지, 대출사기 등 사기 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사기전화 예방홍보 동영상상을 버스터미널, 병원, 농축협,영화관 등 다중시설 20개소와 시청 현관 영상홍보판 및 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 218개소에 송출한다.

또 목포경찰서와 협업해 사기 전화 예방홍보 전단지 등을 금융기관,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한다.

또한, 각종 행사 시에는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전화끊고! 모르는 문자메시지 클릭 NO!>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홍보물품을 기차홍보를 통해 배부하면서 대면 홍보활동에도 적극 주력할 방침이다.

/목포=김재욱 기자